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3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p> <p>대학교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습니다. 학교는 우리 학교보다 작지만 다양한 카페와 음식 체인이 있고 시설도 좋은 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인만큼, 학교에서도 여러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p> <p>수업 강사분은 친절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수업은 영어회화와 비슷하면서도 더 못하단 느낌입니다. 유치원~초등생 대상으로 적절한 주제다 싶은 것들 (밴쿠버의 유명한 관광지, 관광지를 찾아가는 방법 -구글지도나 그 외 교통정보 사이트 이용하여 찾는 수업-이나 바디랭귀지의 의미, 적절한 스몰토크 주제, 캐나다 코인의 의미 등등)이 있고 주로 옆에 앉은 사람과 영어로 어떤 주제에 대해 간단한 의견을 나누는 수업들이었습니다.</p> <p>1주차는 주로 캐나다의 문화와 홈스테이 적응을 위한 것들을 배웁니다. 한국과의 문화적 차이점을 배우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줍니다. 또 저널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매주 그 방법을 이용하여 저널을 써오는 숙제가 있습니다. 주로 그 주의 경험이 어떠했는지 묻는 주제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그 날 수업 내용에 따라 홈스테이 가족들 인터뷰하기와 같은 숙제가 주어집니다. 또 1주차 금요일에 현지 학생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이 시간을 빼고선 외국인 학생을 만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p> <p>2주차에는 효과적인 발표 방법에 대한 수업을 합니다. 올바른 발표 예시에 관한 영상을 보고 직접 주제를 선택한 뒤 조별로 발표를 하는 수업입</p>

	<p>니다.</p> <p>3주차에는 밴쿠버 영화 산업에 대한 수업을 조금 하고 그 동안 했던 활동을 마무리하며 또 한 번의 발표 준비를 하는데 이 발표는 모든 활동이 마무리 된 후에 클로징 세레모니에서 홈스테이 직원들과 학생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밴쿠버 박물관 방문, 컬링 체험, 그랜빌 아일랜드 방문, 밴쿠버 아쿠아리움 방문, 스노우 쇼잉 체험을 하게 되는데 다른 것들은 딱히 준비물이랄게 없지만 컬링과 스노우 쇼잉을 할 때는 추울 수 있으니 따뜻한 옷과 장갑, 모자 등을 챙기면 좋습니다. 특히 스노우 쇼잉은 장비를 착용하고 눈위를 걷는 활동인데 그러다 보니 눈에 옷이나 신발이 젖을 수 있습니다. 방수가 되고 편안한 복장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신발을 구하지 못했다면 그곳에서 8달러 정도하는 덧신 같은 것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레인쿠버라는 별명답게 겨울의 밴쿠버는 눈보다 비가 자주 내립니다. 때문에 날이 늘 흐리고 쌀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만큼 겨울이 추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도리, 패딩 같은 옷은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우산도 늘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비에 대비해야 합니다. 3주 정도 있으면서 날이 손에 꼽게 맑았던 게 5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통 가볍게 내리는 이슬비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데에는 크게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밤늦게만 돌아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다운타운 쪽에서 마약을 팔고 하는 사람들과 노숙자들이 돈을 달라고 구걸하기도 하지만 무시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차이나타운 쪽은 밤에 위험하니 늦게까지 있지 마세요.</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홈맘이 친절하신 분이어서 정말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샤워를 30분 내외로 하고, 화장실 바닥과 세면대를 찢지 않게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으나 곧 적응됩니다. 집마다 다르지만 혹시 모르니 수건은 2~3장 정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p> <p>저는 애기 두 명이 있는 집이었는데 아이들과 놀아주는 건 즐거웠지만 가끔 애기들이 싸우면 집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지만 이런 것들이 불편할 것 같으신 분들은 홈스테이 지원서를 작성할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세요.</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식사는 아침에 시리얼을 주로 먹었고 점심은 제가 직접 준비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만든 샌드위치나 가끔 전날 저녁에 남은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저녁은 홈맘이 늘 준비해주셨고 아니면 친구들과 밖에서 먹었습니다. 먹는 것들이 한국과 다르다보니 금방 배가 고파질 때도 있고 음식이 입에 안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외식은 비싼 편이라서 (대부분 한 끼에 약 20달러 정도씩 지출) 가지고 있는 돈을 잘 계산하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첫 날 학교에 도착하면 소강당 같은 곳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이 때 한 달 쓸 수 있는 교통카드를 주고 캐나다 대중교통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캐나다는 도로가 사각형 모양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길 찾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버스를 한 번 환승해서 약 30분 이내로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갈아타서 학교 앞 까지 가는 49번 버스가 아침에 사람이 매우 붐비는 편이었기 때문에 버스를 내린 뒤 15분정도를 매일 걸었습니다. 그래도 차들이 항상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고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도 위험하지 않아 괜찮았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약 130~40만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약 25~30만원	카페, 레스토랑 주로 이용 (주 3~4회 정도)
쇼핑	약 25~30만원	선물, 음반, 책 등 구매
입장료	약 10만원	갤러리, 캐필라노, 빅토리아

합계	약 220만원	
----	---------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가면 담당자인 발레리가 매우 친절하게 맞아주고 오티 후에는 홈스테이 가족들이 배웅을 나와 집까지 함께 가며 등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줍니다. 교통비용도 학교에서 주는 먼슬리 패스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밴쿠버를 벗어난 주변 지역 (리치몬드)와 같은 2존 구역으로 가게 되면 추가요금에 붙어 카드를 충전해 사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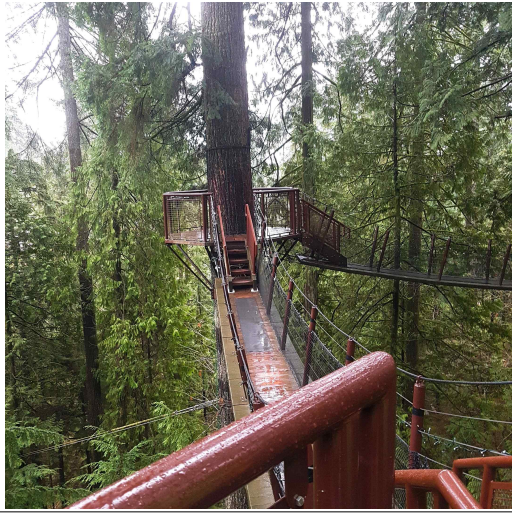
밴쿠버는 주로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관광지들이 많습니다. 3주는 긴 시간이고 이런 곳들을 다 갔다 오고 나서도 딱히 가거나 할 것이 없습니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현지의 거리를 더 자세하게 둘러보고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또 밴쿠버는 영화 산업이 번창한 곳이기 때문에 필름 스팟이라던지 여러 정보들을 알고 방문하면 같은 곳도 색다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3주는 짧은 시간이고 그래서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내용과 시간은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캐나다의 모습은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거리를 걸어다니면 백인보다도 아시안과 무슬림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버스 두 개가 연결 된 것같이 긴 버스는 장애인 승객이 오면 경사판을 내려줍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배려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버스를 내릴 때 승객들이 버스 기사를 향해 땡큐 소리치고 내리는 것도 인상 깊습니다. 홈맘이 아이들을 타이르는 방법도 제겐 너무나 신선했고, 이런 소소한 감상들이 쌓여서 결국 3주간의 밴쿠버는 여러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게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만 영어를 하던 걸 직접 현지에 나가 영어를 시험해 보는 것도 좋았고, 랑가라 학생들을 만날 때 이야기를 나누는 유학생들의 도전 정신과 용기에 자극을 받을 수 있던 것도 좋았습니다. 영어를 많이 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도 실제로 현지에 살면서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고 부딪혀 볼 때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 제 어학연수의 최종목표였던 영어에 대한 동기 부여는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 후기를 보고 저와 같이 해외 경험이 없었고 그간 배운 영어를 시험해 보거나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어학연수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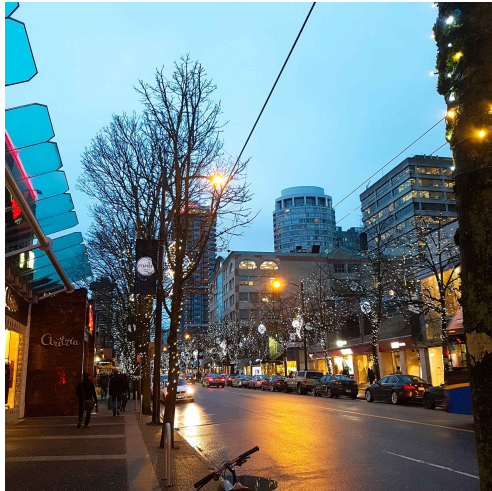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캐필라노



스노우쇼잉



롭슨스트리트



다운타운



빅토리아 다운타운		빅토리아
-----------	--	------